

이주홍의 역사소설 연구

황 국 명*

차 례

I. 들머리	III. 민중의 가능성과 편협성-〈어머니〉
II. 비적대적 경쟁과 체제 내적 개혁 -〈경대승〉	IV. 현실의 과제와 민족의 주관적 인식 V. 맺음말

I. 들머리

1970년대에 들어 한국문단은 역사소설 쪽에서 풍성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 시기 역사소설의 활성화는 역사적 영웅을 통해 내부의 갈등을 억압하려는 음험한 통치술, 내재적 발전론에 근거하여 식민사관을 극복하려는 사학계의 노력 등 여러 요인이 복합된 결과로 보인다.¹⁾

70년대를 전후하여 역사적 현실을 주목하던 향파 이주홍은 <수염난 童話>(1968) <陰溝>(1972), <神話>(1973) 등의 단편뿐 아니라 <慶大

* 인제대 한국학부 교수·한국문화외문화전략연구소

1) 70년대 이후 역사소설의 현저화 요인으로 민족적 자아 찾기 및 과거에 대한 통찰 증대, 통치이념을 주형화하기 위한 역사의 정치적 수단화, 민중의식적 역사해석의 대두, 산업사회로의 변화에서 단절된 과거에의 향수 등을 들고 있다. 이재선, 『현대한국소설사』, 민음사, 1991, 320-321쪽 참조.

升>(1976), <어머니>(1977), <아버지>(1981) 등의 중편소설로 그 관심을 확장한다. 이에 본고는 <경대승>과 <어머니>를 중심으로 작중인물의 행위양상을 분석하고 그 토대 위에서 이주홍의 역사의식을 해명하고자 한다.²⁾

<경대승>과 <어머니>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음 몇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 이들 두 소설은 70년대 현실과 관계하며 독재정권에 대한 우회적 간접적 비판이라는 것이다.³⁾ 이러한 독법은 이주홍의 소설이 역사를 ‘외피’로 삼아 현실의 가치나 신념을 투영한다고 이해하는 것과 같다. 말하자면 이주홍의 소설은 이념적 역사소설⁴⁾ 혹은 이념형 역사소설이라는 것이다.⁵⁾ 그렇다면 이주홍이 투사한 현실의 가치나 신념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세밀하게 따져야 할 것인데, 선행연구에서 이에 대한 해명이 다소 미흡하다.

둘째, 이들 두 소설은 역사기록에 과도하게 의존함으로써 허구성 혹은 창조적 상상력을 크게 약화시킨 한계를 지닌다고 평가된다.⁶⁾ 실제로 사

2) 본 논문은 ‘향파 이주홍 탄생 100주년 기념 문학 심포지엄’에서의 발표문(『이주홍 문학저널』 제4호, 세종출판사, 2006 소제)을 크게 수정 보완한 것이다.

3) 허영석, 『이주홍 소설의 변모 과정 연구』, 이주홍이동문학상 운영위원회 편, 『이주홍문학연구-학위논문모음』, 대산, 2000, 229-234쪽. 송명희, 『이주홍의 역사소설과 역사적 상상력』, 이주홍 이동문학상 운영위원회 편, 『이주홍문학연구-작가작품론』, 대산, 2000, 155-156쪽. 류종렬, 『이주홍과 근대문학』,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4, 327-328쪽. 그러나 <어머니>를 현재와 관련시켜 해석하는 것은 도식화의 위험이 있다고 앞서 주장된 바 있다. 김친혜, 『두 편의 역사소설-이주홍의 <어머니><아버지>론』, 이주홍 이동문학상 운영위원회 편, 『이주홍문학연구-작가작품론』, 59쪽.

4) 이재선, 같은 책, 327쪽.

5) 김윤식 교수는 의식형 역사소설과 이념형 역사소설을 구분하는데, 그 기준은 일상적 삶의 디테일을 드러낼 수 있는가에 있다. 작가가 다루는 시대의 풍속사가 복원되어 있지 않다면 일상적 삶의 측면, 인물의 디테일을 재생할 수 없고 따라서 사회역사적 제약성을 반영하는 의식형 역사소설이 성립할 수 없다. 이때 소설은 역사적 인물을 빌어 작가의 이념을 드러내는 이념형 역사소설이 된다. 김윤식, 『역사 소설의 네 가지 형식』, 『한국근대소설사연구』, 을유문화사, 1986, 412-417쪽 참조.

실(史實) 의존은 <경대승>에서 더욱 극심한데, 이로 인한 소설적 결과나 역사자료의 허구화를 따져볼 만하다.

셋째, 선행연구는 작가가 역사를 어떻게 부리는가에 주목한다. 말하자면 이들 소설에서 작가가 역사로써 달성하려는 효과가 무엇인가에 초점을 둔 것이다. 이런 접근은 공시적 관점에서 역사의 역할을 나누는 것이므로, 작가가 역사의 운동과정에 대해 어떤 통찰을 드러내는가를 살피기 어렵다.⁷⁾ 이주홍의 두 소설에서 역사의 작동에 관한 인식을 살필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본고는 작중인물들의 행위 및 의식의 양상을 검토하고, 이런 양상이 이주홍의 역사의식 및 현실인식과 어떻게 연관되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⁸⁾

II. 비적대적 경쟁과 체제 내적 개혁-〈경대승〉

1. 반역사적 구조와 허구적 설정

작가가 말미에서 덧붙여 말한 것처럼, <경대승>은 고려시대의 무인정변이라는 ‘史實’을 작품 전면에 배치하고 있다.⁹⁾ <경대승>을 완결한 직

6) 송명희, 같은 글, 160쪽, 류종렬, 같은 책, 326-327쪽.

7) 역사를 소설의 흥미를 돕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는가, 현재의 관심사를 우회적으로 투영하는 도구로 삼는가를 따지는 일이 그러하다. Harry E. Shaw, “The Historical Novel”, M.Coyle, P.Garside and J.Peck(eds), *Encyclopedia of Literature and Criticism*(Routledge, 1991), p.537.

8) 이주홍, 『깃발이 가는 곳을 향하여』, 태화출판사, 1984에 수록된 작품을 대상으로 하고 인용할 때 쪽수만 표시함.

9) <경대승>은 1973년에 설립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유신체제라는 살벌한 상황 속에서 문예진흥의 가치를 내걸고 기획한 ‘민족문학대계’의 2차분 제 8권에 수록되어 있다. 이 기획은 민족사의 중요한 사실(史實)을 소재로 국난을 극복한 선인들의 의지와 위업을 소설화하고, 이들 소설을 통해 국민정신을 계발하고 주체의식을 배양하는 데 근본 방향을 두었다. 『문예진흥월보』, 창간호, 1974년 5월호, 10

후에 이주홍은 이어서 <어머니>를 집필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는 정중부의 집권 이후 명학소의 천민 망이 망소이가 주도한 민중봉기를 다루고 있다.¹⁰⁾ 거의 같은 시기에 집필된 두 작품이지만, <경대승>의 경우 창작상의 심적 압박이 상대적으로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

소설의 구성상 필요로 첫 머리의 청주 민란만은 허구로 했으나 그 밖의 것은 모두 사실(史實)에 준거해 이야기를 엮은 것이다. 행여나 역사학 전공을 하는 이들에 혼란을 주는 일이 있을까 해 밝혀 두는 바다.(156)

1장 ‘설한풍’의 청주민란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사실(史實)에 준거”했다는 진술처럼, <경대승>은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의 기사를 저본으로 삼고 있다.¹¹⁾ 기존의 사적과 ‘그래서, 그래서, 마침내’와 같은 역사기

쪽, 『문예진흥월보』, 1974년 7월호, 25쪽.

10) 1977년 『창작과비평』 여름호에 발표된 <어머니>는 <경대승> 이후에 집필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경대승>을 수록한 민족문학대계가 1977년 12월에 간행되었기 때문에, 독자가 먼저 접한 작품은 <어머니>였다. 대계에 실린 작품 말미엔 집필시기가 표시되지 않았지만, 이후 작품집에서 1976년이라 부기하였다. 이는 탈고 시기를 나타낸 것으로 보이며, 2차분을 76년에 발간하기로 하고 집필기간을 75년 8월부터 76년 2월까지로 제한하였던(『문예진흥월보』, 1975년 8월호, 14-15쪽) 사정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주홍 소설에 관한 서지연구에서 류종렬은 민족문학대계 8권의 초판인쇄를 1979년 12월 15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류종렬, 같은 책, 321, 385, 413쪽. 그러나 필자가 살펴본 대계 8권은 동화출판공사에서 77년 12월 15일 초판인쇄, 12월 20일 초판발행되었다. 필자의 텍스트에 78년 1월 25일자 국립중앙도서관 등록인이 찍혀 있으므로, 이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듯하다. 그러나 류종렬 교수가 지적한 판본이 실재하고 있으므로, 서지에 관한 새로운 확인이 필요하다.

11) 권세가의 탐학과 무인정권의 권력투쟁, 이로 인한 백성의 고통은 물론이고, 경대승의 행적과 관련된 세부적 일화도 대체로 역사기록과 부합한다. 예를 들어, 큰 뜻이 있어 가산을 축적하지 않았고 선고의 토지 문권을 군부에 헌납했다는 점, 정중부를 제거하고 학식과 용략을 중시하며 유자(儒者)를 중용했다는 점, 경대승의 장례에 문사들이 애도했다는 것 등이다. 특히 의종 16년조의 거행에 관한 기사(39-40), 조위충의 발란과 관련된 기사(110-119)는 연월일 순으로 기

술방식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경대승>은 당대의 인간이 실천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발생한 사건의 목록처럼 보인다. 말하자면, 역사적 사건은 당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일어난 사태로 보인다는 뜻이다. 이런 의미에서, <경대승>의 전반적 구조는 反歷史的이라 할 수 있다. 반역사적 구조, 즉 이미 결정된 생의 구조 속에서 주인공은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 정중부 일파를 제거한 이후 경대승이 보여준 불안감과 무력감, 그리고 악몽 끝에 급서하게 됨은 이런 구조에서 말미암고, 이는 작가가 사료를 무비판적으로 추수한 결과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 부기는 다시 흥미할 만하다. 이는 첫째, 史實과의 관계에서 허구를 소설 특유의 구성원리로 강조한 것일 수 있다. 말을 바꾸면, 청주민란은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없는 허구이니 事實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이런 강조는 역사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라는 주장을 암묵적으로 승인한다.

둘째, 역사(가)에서 소설(가)로 이동하는 계기가 구성원리로서의 허구성 유무에 있지 않고 방법, 곧 문학적 수법에 있다면¹²⁾, 역사와 소설 양자를 같은 차원에 두고 짚 수 없다. 허구성이 소설 고유의 구성원리일 수 없다는 것은 역사 혹은 역사가들이 사실이라고 알고 있는 것 또한 소설처럼 하나의 해석, 따라서 허구일 수 있다는 뜻이므로, 역사소설에서 우리는 문학적 수법이나 문체 등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다.

이 두 가지 가운데 작가 부기는 전자에 초점을 둔 듯하다. 역사가의 혼란을 우려할 뿐 아니라 상당 부분 역사기술방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허구를 고유의 구성원리로 인식하고 있다는 데 <경대승>을 역사물이 아닌 역사소설로 읽을 최소한의 근거가 있다.¹³⁾ <경대승>이 기록

록하는 편년체를 따르거나 연대기적 목록으로 제시되어 있다. 고려사 권 100, 열전 권 13 경대승전, 동아대학교고고전연구실 편, 『역주고려사 8』, 태학사, 1987, 549-554쪽.

12) 김윤식, 「역사 소설의 네 가지 형식」, 같은 책, 396쪽.

의 轉寫로 일관하고 있다면, 더 이상 소설로 읽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허구의 설정에 작가의 어떤 自意가 작용하는지, 허구적인 청주민란이 구성상 어떤 필요에 기여하는가를 살필 만하다. <경대승>에서 작가의 자의가 작동하는 허구적 설정은 여럿이지만, 특히 중요한 것으로 첫째, 작가 자신이 지적한 청주민란이다. 9세의 나이로 경대승은 아버지를 따라 본관지 청주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청주민란을 목격한다. 그는 유순하던 백성들이 “잔인한 악귀”로 돌변한 데 경악한다.

일순에 광포(狂暴)한 짐승들로 둔갑을 했던 민중들의 함성!

그렇게도 죽기가 싫어 불 속에서 튀어 나오고 튀어 나오고 하던 그
김 항부!

눈을 바로 뜰 수 없는 눈바람 속을 가르고서 필사의 청주 탈주를 감
행하던 자기와 병졸……

원한 어린 눈을 무섭게 부릅뜨고서 쳐다보는 개경 사람들을 내려다보
고 있던 그 수형자(受刑者)들의 머리들!(28)

광포한 짐승 같은 민중, 화형당하는 관리, 필사의 탈주, 효수된 수형자의 원한 어린 눈은 악몽을 꾸게 하는 정신적 외상이 되어 경대승의 심리를 강력하게 사로잡는다. 물론 9세라는 어린 나이인 까닭에, 경대승은 백성의 순박성과 악마성이라는 모순을 이해하지 못한다. 서술자의 지적처럼, 경대승은 백성의 본질 혹은 실체를 알 수 없었던 것이다.

또 하나의 허구적 삽화는 중미정 구경을 하면서 들은 가난한 역부 아내의 ‘애끓는 비화(悲話)’(31-32)이다. 토목 공사에 부역을 나온 사람이 식량을 지급하지 못해 동료들에 얻어먹는 처지였는데, 어느 날 역부의

13) <경대승>은 무신란과 무신정권을 작가의 편견없이 기술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역사와 픽션 사이의 관습적 차이가 없어진 기록적 역사소설이라 이해된다. 송명희, 같은 글, 159쪽. 그러나 고려사 열전에서 집정무인들이 반역전에 편입되는 등 반무인정권, 반혁명파의 입장에서 부정적으로 서술되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어 있다. 변태섭, 『고려사의 연구』, 삼영사, 1987 1판2쇄, 118-119쪽 참조.

아내가 점심을 준비해와 동료와 나누어 먹으라고 말한다. 이에 역부가 몸을 팔거나 남의 것을 훔친 것이냐고 추궁하자, 아내는 머리털을 깎아 팔아 양식을 샀다며 머리를 내어보였다는 것이다. 경대승의 가슴을 저리게 한 이 ‘피맺힌 이야기’는 『고려사절요』 의종 21년(1167년) 3월에 기록된 일화¹⁴⁾지만, 14세의 경대승이 이 이야기를 실제로 들었다는 어떤 증거도 남아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삽화를 경대승과 결부시킨 것은 史實의 허구적 설정이라 할 것이다.¹⁵⁾

난 중미정에서 그 피맺힌 이야기를 듣고서 정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울었던 말이오. 그래서 무슨 노릇을 해서라도 약하고 설움받는 사람들 편에 서서 내 힘껏 이 세상을 바꾸어 보리란 결심을 했던 것이란 말이오.(29)

이렇게 볼 때, 두 허구적 설정은 경대승이 “약하고 설움받는 사람들”의 처지에 대한 무지에서 성숙한 인식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인다고 하겠다. 말하자면, 경대승이 목격한 민중적 현실 혹은 새로운 진실은 그에게 삶의 전환점을 제공하는 극적 계기인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지적한 두 가지 허구적 설정은 경대승의 생각과 행동의 변화에 필연적인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소설적 방법이라 하겠다.

2. 생의 전환과 비적대적 경쟁

삶의 전환은 삶의 관습적인 양식과 경험을 돌파하는 일이며, 거기엔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다. <경대승>은 첫 머리에서 경대승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세 가지 사건을 들고 있는데, 그 하나는 15세의 나이에 음서로 교위직을 제수받은 것이며, 둘째는 아버지 경진의 급서, 셋째는 재산을

14) 민족문화추진회 역, 『고려사절요』 2,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86 중판, 151쪽.

15) <경대승>은 명종 6년(1176년) 남적 토벌에 동원된 군인들이 붙인 익명의 벽서로 망이 난민의 벽서로 변조(124)하고 있는데, 이 역시 허구적 설정이라 할 것이다.

군부에 헌납한 일이다. 이 가운데 작가가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경대승이 문과명가 출신의 무인이라는 점, 또 경진이 남긴 토지 문건을 군부에 헌납한 사실이다.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 사(私)를 멀하고 공(公)을 받드는 일이라면 아버지께서도 굳이 꾸짖진 않으실 거요. 문과의 명가집 출신으로서 어찌 무과를 택할 수 있는 일이나고 반대하시는 아버님의 나무라심을 듣지 않고, 굳이 무과를 지망했던 것도 나로선 범연치 않은 포부를 가지고 있었던 거요. 문신만이 독천(獨擅)하고 있는 이 비뚤어진 천하를 어떻게 하면 정도(正道)로 되돌려 놓을 수 있을까 해서 말ियो(...중략...) 저렇게 백성들이 못살아 허덕대는 것도 실은 그 근원이 이런 역리(逆理)에 있는 거란 말ियो.(29)

<어머니>에서도 작가는 문벌이 당시의 정계를 휘어잡던 “문신이었음도 불구하고” “스스로 무신의 편에 서서” 무과를 지원한 “특이한 인물”이라 강조한다.(232-233) 경대승이 문과명문가 출신인가는 분명하지 않지만¹⁶⁾, 작가의 강조점은 출신성분에 있음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정중부의 지적처럼, 기득권을 향유할 수 있는데도 스스로 그 특권을 포기(60)한 데 경대승의 특이성이 있기 때문이다.

16) <경대승>에서 15세에 교위에 오른 해에 경진이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경진은 정중부의 난에 가담한 온건한 그룹에 속했고 명종 4년(1174년) 우군병마사로 조위총의 난을 토벌했고(고려사 권 96, 윤권전 부 윤인침 전), 관직은 知門下省事, 참정지사에 이어 中書侍郎平章事に 이르렀다. 이는 경진이 실권자로 중방구성원임을 추측케 한다. 김당택, 『고려무인정권연구』, 새문사, 1987, 26-30쪽 참조. 김창현, 『정중부정권의 성립과 운명』, 『한국중세사연구』 15호, 2003, 16-17쪽 참조. 고려사와 청구경주측보를 검토한 한 연구에 따르면, 경대승의 아버지 경진의 선대는 신라말기에 청주지방의 유력한 호족 세력이었고, 경진의 대에서 무반가문과 광범위한 혼맥을 맺고 중앙의 유력한 무반가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의종때까지 고려의 음서제수자의 평균 연령이 17.2세인 것으로 볼 때, 15세에 정9품 교위직에 오른 것은 무반가문으로서의 확고한 지위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경규만, 『경대승의 집권과 그 성격』, 충북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4, 6-11쪽.

다른 한편, 위 인용에서 보듯 경대승은 부친이 수탈한 가산 헌납을 두고 나라를 위한 멸사봉공이라고 믿는다. 이를 두고, “순직 청담한 성품”을 세상 사람의 뇌리에 깊게 심었다 하고(7), <어머니>에서 경대승은 “탐관오리들에게 찬물을 끼얹어” 준 “양심인”(233)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아버지 경진이 “향관(鄉貫) 토민(土民)들의 원구(怨咎)의 적(的)”(26)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역리(逆理)” 곧 수탈로 얻어진 재물을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경대승의 행위는 신망을 얻기 위한 방법이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다.¹⁷⁾ 그러나 <경대승>은 무인의거에 방관적 태도를 취한 것은 문신가문 출신인 때문이며, 토지 문권의 헌납도 “출세를 위한 인기전술”이라는 정중부 일파의 생각은 “곡해”(88)라고 암시한다.

문신명가 출신이지만 특권을 포기한 양심인으로써 경대승은 “문이건 무이건 나라 사랑하는 일”(60)에 다를 게 없다 하고, 정중부에게 권력 체계 내부의 비적대적 경쟁을 허용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진정 그게 중요한 겁니다. 밑더라도 경쟁자는 뒤두는 편이 내 몸에 유리하거든요. 아주 없애 버리고 만다면 나중에 경쟁 대상을 동지 안에서 찾아 필경엔 자충지난이 일어나기 마련인 것이니까 말입니다.(84)

작중 진준의 말처럼 “문과 무는 저 천공에 떠 있는 해와 달”과 같으니 문무의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비적대적 경쟁은 체계에 장력을 부여하고 변화와 갱신에 기민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어느 한편의 씨를 말리겠다는 극단이 오히려 사회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의식한 점에서, 작가는 문무 사이의 비적대적 경쟁을 통해 어

17) 부친이 빼앗은 전안을 선군에 헌납하여 인심을 끌어 세력을 규합해 거사에 성공했다고 이해된다. 김창현, 같은 글, 22쪽. 또 토지 문권을 원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헌납한 것은 군대 내에서 인망을 넓기 위한 행동이며, 경대승은 명확소민의 봉기를 호기로 삼아 정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고 이해된다. 김호동, 「명확소민 봉기의 결과와 역사적 의미」, 『한국중세사연구』, 15호, 2003, 169-170쪽 참조.

는 한 극단을 동일시하는 전체주의를 부정한다고 하겠다.¹⁸⁾

이로써 경대승은 청렴한 양심가로 문무겸비 혹은 문무조화를 추구했고, 그의 장례에 백성들이 눈물을 흘린 것처럼 민중의 지지를 받은 지도자가 된다. 말하자면 경대승은 모든 독천과 전횡, 독재와 전제를 비판하고 청렴성·문무조화·민중성을 두루 갖춘, 혼란기의 지도자라는 뜻이다.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볼 때, 경대승을 특권을 포기한 양심가라 한 것은 정중부 일파의 제거를 정당화하기 위한 설정일 것이다. 그런데 무과를 선택하면서 경대승에게 어떤 주저나 망설임이 없음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그의 선택이 자기인식을 통한 의식적인 자기부정, 곧 자각상태가 아니라는 증거일 수 있다. 민중의 삶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없지 않지만, 이 증거는 민중이 겪는 생존의 위기와 절망에 그가 동일한 무게로 직면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생의 전환이라는 그의 모험이 궁극적으로 어떤 지점에 도달하는가를 검토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3. 민중의 잠재적 위험과 체제 내적 개혁

특권을 포기한 모험의 궁극점은 상황이나 사건에 대한 경대승의 관계를 규정할 것이다. 이를 살피는 일은 경대승이 비뚤어진 천하를 ‘정도(正道)’로 되돌려 놓겠다고 할 때 그 ‘정도’란 무엇이며, 되돌려 놓는 방법은

18) 고려사와 고려사절요는 찬자 자신의 사론 대신 先儒 史家の 기성 논찬을 인용하였다. 찬자의 주관이나 역사관을 알기 어렵지만, 간접적으로 찬자의 견해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정중부의 거사에 대해 사신 유승단의 말을 빌려 “원수(元帥)와 고굉(股肱)은 한 몸으로 서로 의지한다. 그러므로 옛날의 어질고 슬기로운 임금들은 문무(文武)를 좌우수(左右手)같이 보아서 피차의 경중(輕重)이 없게 하여, 임금은 위에서 밝고 신하는 조정에서 화합하여 반란이 일어날 수 없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민족문화추진회 역, 같은 책, 164쪽. 이주홍의 소설에서 경대승이 펼친 주장은 유승단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유승단은 최씨 집정기인 고종 때 명종실록을 편찬한 사신이었기 때문에 무신란의 발생이나 무인정권을 신랄하게 비판하기는 불가능하였다고 이해된다. 변태섭, 같은 책, 210쪽.

어떠하고, 그것은 어떻게 약자 민중을 위한 것이 되는가라는 물음과 동궐에 놓인다.

<경대승>은 무인들이 겪는 차별과 경제적 불만을 무시하지 않지만, 특히 백성들의 참혹한 삶을 근거로 왕의 폭정과 방탕을 강조한다. 전체 6장 가운데 제2장 ‘특권’과 제4장 ‘응보’는 그 소재목이 암시하듯 의종의 실정을 폭로하고 비참한 최후를 보여준다. 백성들의 과중한 조세, 공물, 부역에 지방탐관오리의 토색질, 탐욕스런 권신들의 전횡 등 모든 문제의 궁극 책임은 왕에게 있다는 것이다.

권신들이 재물을 거두어들이기에만 눈이 어두워, 저렇게 순량한 백성들을 굶겨 죽여 노천의 원귀(怨鬼)가 되도록 해놓고 있는 원인도, 근원을 따지고 보면 그것을 주도할 책임이 있는 왕 자신이 사치와 향락에만 정신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이란 것이었다.(11)

이러한 不仁 군주로 인해 순량한 백성이 악귀처럼 잔인한 폭도로 돌변하는 청주민란에서 서술자는 어린 경대승이 미처 깨닫지 못한 백성의 본질을 순자(荀子)를 인용하여 아래와 같이 지적한다.

임금은 배고 백성은 물이다. 물은 배를 띄우고, 또 때로는 물이 배를 엮치기도 한다는 말은 곧 임금은 백성이 세우는 것이나, 때에 가서는 백성이 그 임금을 없애기도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25-26)

백성의 실체를 물에 비유한 순자를 인용함으로써, <경대승>은 실력으로 현실권력을 장악하는 역성혁명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삶의 전환점을 제공한 중미정 역부 이야기를 듣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울었”다(29)고 말하는 것처럼, 경대승은 맹자의 不忍人之心, 곧 타인의 불행과 약자의 고통을 차마 보지 못하는 마음을 드러낸다. 의종의 실정을 통렬하게 공격한 맥락을 고려하면, 경대승은 仁政, 즉 덕으로 인을 실

행하는 왕도정치를 지향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한 사람이 민심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심이 한 사람을 좌우”(84)한다는 진준의 말을 따라 경대승이 “민심이 곧 천심”이라고 정중부에게 충언할 때, 경대승은 패도정치를 부정한 셈이다.

“옛부터 민심이 천심이란 말이 있어오지 않습니다. 처음엔 이번 무인들의 의거를 다 통쾌하게 생각했다 하더라도, 일이 중정(中正)을 잃으면 백성들이 과거 문신천하이던 때처럼 또 우리를 외면하려 할 게 아니겠습니까!(83)

<어머니>에서도 경대승은 망이 망소이 난을 두고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씨도 손도 없도록 죽여버리자는 정중부에게 맞서 그런 대응이 오히려 전국 각처의 민란을 자극할 수 있으니 “좋은 말로 달래는 편이 현명한 처사”라고 지적한다. “민심이 천심”(231)인 까닭이다. 민란의 원인이 백성을 수탈하는 ‘역리’에 있다면, 수탈당한 백성이 폭발하는 것은 “이치의 당연한 결과라 생각”(234), 곧 ‘순리’이며, 이것이 바로 하늘의 뜻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경대승은 신상필벌의 정치보다 사랑(仁)으로 백성을 달래는 정치를 요구한 것이다.

그렇다면 <경대승>에 암시된 역성혁명은 어떤 입장에서 추구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체제 외측에서 볼 때, 이는 군주 세습을 부정하고 왕의 성과 천명을 바꾸거나 교체할 수 있는 백성들의 잠재력을 드러낸다. 그러나 체제 내측에서 반정이나 역성혁명은 기존 질서에 대한 백성들의 잠재적 위험성을 의미한다. 청주민란 이후 악몽에 시달린 것처럼, 경대승은 후자, 즉 민중의 통제불가능한 힘을 두려워했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경대승은 백성에 의해 군왕의 성씨가 바뀌는 사태가 오기 전에 민심을 달래는 것이 현명한 통치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민란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정중부에게 “자가숙청의 서정쇄신”(127)을 역설한다.¹⁹⁾

그렇다면 민심이 곧 천심이라 할 때, 경대승이 강조하는 것은 민중의 직접적 행동이 아니라 ‘천심’이라는 추상적 정의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대승>은 사적에 기록된 災異현상이나 의종 살해 후의 異蹟 현상을 그대로 보여준다.²⁰⁾ 그래서 “나라일에는 우유부단”(151)하다고 자평하듯, 경대승이 얼마나 유익한 사회적 결과를 생산할 능력을 지녔는가와 관계없이, <경대승>은 그의 동기가 갖는 도덕적 순수성을 강조한다. <경대승>에서 경대승의 장례를 대미로 삼은 것도 이로 말미암을 것이다. 백성들이 新惡에 몰린 경대승을 애도하고 가산에 집착하지 않은 그의 ‘청렴함’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이다.²¹⁾

따라서 의종의 방탕과 음욕을 비판한 것도 군왕을 내면적 동기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며, 결국 인덕을 베푸는 군왕을 정점으로 하는 왕도정치를 추구한다고 하겠다. 말하자면, 왕을 정점으로 하는 집권적 통치체

- 19) <경대승>에서 경대승은 정중부 무인정권에 어느 정도 국정개혁에 대한 기대를 건 것으로 보인다. 살육을 중지하라고 충언하거나 서정쇄신을 역설한 것이 그 증거다. 그러나 <어머니>의 경우, 무인정변을 가뭇에 단비같은 청량제라 하면서도 정중부와 경대승이 정변 직후부터 ‘불화’했고 정치적 태도와 개인적 처세에서 “상극의 위치”로 대립(232)했다고 기술된다. 무인정변에 대한 작가의 주저와 망설임이 엿보이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 20) 맹자와 순자에 의하면 不仁하여 백성이 따르지 않는 임금에 축출가능하다. 그러나 맹자혁명론의 전제는 혁명주체가 민중의 뜻에 근거한 도덕성을 구비해야 한다는 것이고, 민중이 따르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늘의 뜻이 그렇게 나타난다고 말해진다. 인간을 이익과 쾌락을 추구하는 이기적 존재로 파악한 순자에게 자연 현상, 재해, 이번은 인간과 무관하다. 순자혁명론은 하늘과 분리되어 직접적인 민중의 의지에 기반하며 신분보다 능력과 그 사회적 이익을 중시한다고 이해된다. 하우하, 『순자의 인간관과 정치사상』, 이화여대 석사논문, 1993, 55-56쪽.
- 21) <경대승>에서 경대승의 태도는 막스 베버의 견해를 따르면 결과적 선, 즉 행위 결과를 중시하는 책임윤리보다 동기의 선, 곧 행위자의 심정을 중시하는 신념윤리에 가깝다. <경대승>에 인용 참고된 고전어구를 볼 때, 작가가 맹자의 도덕주의와 순자의 현실주의를 결합하고 상보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듯하나, 전체적으로 볼 때 신념윤리를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신념윤리에서 나쁜 결과 나올 경우 세상, 타인의 어리석음에 책임을 전가한다. 류지한, 『베버의 가치 철학에서 책임윤리와 합리성의 한계』, 『철학논총』 29집, 새한철학회, 2002, 192-197쪽 참조.

제가 ‘정도’이며, 이 ‘정도’를 회복하는 방법은 문무의 조화, 자기숙청의 서정쇄신, 곧 체제 내적 개혁이라는 것이다.²²⁾

사회적 결과를 낳는 능력보다 동기의 순수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경대승>은 천민 출신의 무관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이다.

그들은 헝클어진 국정을 바로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신들 대신 저희들이 권력을 바꿔잡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킨 것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대개가 어릴 때부터 굶주리고 짓밟히고 그래서 글도 배워보지 못하고 자라온 미천한 출신들이었기 때문에, 별안간에 쥐어진 권력에만 눈이 어두워 나라일 같은 것은 생각할 여유도 없었다.(86-87)

경대승은 거사 직후 명종이 승선직을 제수하자 儒者가 아니라 글을 모른다며 사양한다(136). 이는 역사에 기록된 사실이긴 하나, 무인들의 불순한 동기를 비판하면서 글을 모르는 천계 출신이기 ‘때문에’ 권력에만 눈이 어둡다는 진술은 논리적 비약일 것이다. 이는 미천한 무인들의 정치적 진출에 반감을 뜻한 것으로, 경대승을 문과명가 출신이면서 무인의 길을 선택한 인물로 그린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경대승>에서 제시된 체제내적 개혁은 체제 내부의 의식적인 자기조절이긴 하되, 그 의사결정이 소수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런 방안은 민란의 발전을 배제하거나 민란을 부정적 경향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경대승>에서 민란은 ‘정도’가 아니라 기존 체제나 질서를 확장하거나 갱신하는 데 유용한 비정상적 경험일 뿐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작중인물 경대승은 자신이 추구하는 도덕적 이상과 자신의 현실적인 불안 사이에서 동요할 수밖에 없다. 또 백성이 자신을 외면하지 않으리라는 믿음(154)의 근거도 불확실하다. 구체적인

23) 이주홍은 <경대승>과 <어머니>에서 무인정면에 대해 ‘의거’‘혁명’‘하극상’‘쿠데타’라는 용어를 겸용하고 있다. 개념적 차이를 철저히 인식하지 못한 결과일 수도 있고, 의도적인 혼용일 수도 있다.

결과보다 주관적 동기를 강조한 것처럼, 그의 믿음은 외부세계에 토대를 두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대승>의 1장에 시도된 풍속의 세밀한 묘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고, 작품 전체에 민중의 한탄과 울음은 있지만 구체적인 일상적 삶이 형상화되지 못한 것이다. 경대승의 동요와 근거없는 믿음으로부터 都房 설치가 비롯된다고 보면, 일련의 위협과 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경대승은 약자와 설움 받는 자의 편이 되겠다는 이전의 사유를 깡그리 부정한 것이라 하겠다.

Ⅲ. 민중의 가능성과 편협성-〈어머니〉

1. 아버지 이야기와 자기부정

<어머니>의 중심 사건은 천민집단의 특수 행정구역인 명학소의 망이 망소이 난이다. 이 민중봉기에 대한 옛 기록은 매우 소루하며 그 구체적인 원인이나 목적도 명확하지 않다. <경대승>에 뒤이어 <어머니>를 집필한 것은 이처럼 역사에서 억압된 천민의 이야기, 역사에서 배제된 사건의 의미를 탐구하기 위함일 것이다.²³⁾ 그래서 <어머니>에도 역사자

23) 역사소설은 사건의 목록만으로 충분할 수 없다. 사건과 사건의 목록 사이에 개재된 시간과정이야말로 소설의 온당한 영역이며, 그 사건들 사이에서 드러나지 않은 의미를 얼마나 읽어내느냐로 소설적 상상력의 품질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역사소설은 말해지지 않은 이야기(untold story)라 할 수도 있겠다. 말해지지 않은 이야기란 그 요소가 처음으로 소설화되는 이야기, 독백적 사적으로 말해진 이야기, 말했으나 억압된 이야기이다. 기존 권력관계가 배제한 자료나 기존 질서가 감추고 싶어하는 사건을 포함하기 때문에, 말해지지 않은 이야기는 기존 질서와 관계에 강력한 충격을 가하거나 피억압자에게 힘을 부여할 수 있다. 역사에서 배제 억압되었던 이야기를 처음 말하는 이야기의 정치적 효과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발표 시기가 중요함은 자명하다. M.Hanne, *The Power of The Story: Fiction and Political Change*(Berghahn Books, 1994), pp.12-14 참조.

료가 돌출되어 있지만, <경대승>의 史實이 주인공의 생을 이미 결정된 구조에 속박한 것과 비교하면, <어머니>에서 작가의 상상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망이 형제의 아버지는 장관이 지난 길 앞에서 진작 비켜나지 않았다고 매를 맞고 새도 아닌 인간이 어떻게 그 이상 빨리 비켜날 수 있느냐며 항변하다가 제 손으로 판 흙구덩이 속에 ‘생매장’ 당해 죽는다.(161) 남편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억척어멈이 될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는 어린 자식의 약값을 위해 머리털을 깎아 팔고 밥을 얻어 어린 자식을 양육한다. 이러한 ‘궁옥’ 속에서도 어머니는 ‘자모’나 ‘비굴’함이 없이 의연하고 담대한 태도로 현실에 직면한다. 또 아들 형제의 거사를 짐작하고 자식 잃은 것은 가슴 아픈 일이만 “너의 아버지예겐 그제 효도가 되는 일”(172)이라고 말하며, 진영을 떠나 노모를 만나러 온 망이에게 “왜 왔느냐? 싸움이 끝났느냐? 어서 가거라. 관군 온다는 문을 듣고서도 통수(統帥)가 이렇게 빠져나올 틈이 있더라 말이나!”(185)고 꾸짖는다. 2차로 일어난 후 투항 여부를 두고 고민하던 망이가 꿈에서 만난 어머니에게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물었을 때, 어머니는 증오의 눈으로 “너의 뜻이 성취”되기를 바란다(245)고 말한다. “어머니의 명령”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겠다(245)고 하거니와, 망이 망소이 형제에게 어머니는 생사여탈권을 지닌 양육자일 뿐 아니라, 자식들의 대사회적 관계를 규정하는 윤리적 지주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어머니는 남성적 여성이다.

그런데 표제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작품의 간판격 인물이라 하기 어렵다. 어머니의 남성성은 인간 사이의 차별, 불평등과 부자유에 분노하던 남편에게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노모는 “곧잘 죽은 남편의 이야기”를 자식에게 들려주었다.

너의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고 있던 걸 나는 지금도 잊지 않고 있지.
(…중략…) 우리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로, 너희 미물만도 못한 신세를 타고 나왔던가 말이야. 새로 제맘대로 날고, 물고기도 제맘대로 놀

고, 나무도 돌도 이 세상 만물치고서 제 자유로 살아가지 않는 게 하나도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 인간만 부리는 사람과 부림받는 사람의 구별이 있어 왔던고 말이야.(170)

“부리는 사람과 부림받는 사람의 구별”에 의문을 품을 때, 아버지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의식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놈들이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구박할 건가. 내가 죽더라도 이 내 눈알을 빼어 저 분읍 공산(公山) 상상봉에다 걸어놓고 보아줄 테다”(173)고 할 때,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이해하며 자신이 하는 일에 책임이 있다는 확신을 드러낸다.

이처럼 반복되는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제공일 수 없다. 그것은 경험을 재현함으로써 해석과 가치를 부여하고, 가족구성원이 공유하고 있는 현실의 본질에 관한 의미를 전달함으로써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조언한다.²⁴⁾ 그렇기 때문에, 망이 형제는 “너의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더냐며 기회 있을 때마다 떳떳하게 살아야 한다고 훈계”하던 노모의 말을 회상(252)하는 것이다. 망이 망소이의 거사는 어머니의 의식화 교육이 주효했다 하겠고²⁵⁾, 남편이자 아버지의 경험은 화자인 어머니와 청자인 자식들의 공동경험으로 통합된다고 할 수 있다.²⁶⁾

이런 의미에서, 망이 형제에게 삶의 모델은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가

24) 이야기형식에서 사건은 이야기꾼의 생애 속으로 침투한다. 이는 사건을 경험함으로써 사건을 청중에게 함께 전해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야기꾼은 실질적 관심에 근거하여 유용한 지혜와 조언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화자와 청자의 공동경험이 되면서 삶에 관한 모델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발터벤야민, 『발터벤야민의 문예이론』(반성완 역), 민음사, 1983, 123, 170, 183쪽 참조.

25) 김천혜, 「두 편의 역사소설」, 『이주홍문학연구-작가작품론』, 57쪽

26) 이야기가 집단적 삶을 사회적 기원으로 한다면 소설이 사회적 기원은 중산계급의 고독에 있다. 또 이야기가 공동경험을 원자료로 삼는다면, 소설은 고도로 개인적인 경험을 원자료로 한다. F. 제임슨, 『변증법적 문학이론의 전개』(여홍상·김영희 역), 창작과비평사, 1984, 89-91쪽.

다. 망이 아버지의 자기인식은 망이 형제로 하여금 자기부정으로, 즉 “인간 아닌 인간에서 인간 같은 인간”(196)으로 나아가는 계기를 제공하는 매개적 인물이라 할 수 있다.²⁷⁾ 따라서 어머니의 이야기는 망이 형제가 자유롭고 평등한 세계를 꿈꾸며 저항주체로 성장하는 데 동기를 부여하는 ‘아버지의 이야기’라 하겠다.

2. 민중의 잠재적 가능성과 영웅의 특수한 죽음

망이 망소이 형제가 거사를 결심하게 된 배경은 첫째, “무신쿠데타의 교훈”에 있다. 말하자면, 단결된 힘만 있으면 신분이 낮은 자도 올라설 수 있고, “신성 불가침 속의 신앙적 존재”처럼 보였던 군왕도 “과감한 힘의 앞에선 한낱 범인(凡人)”으로 격하된다는 것이다(177). 이런 의식은 하늘의 뜻과 인간지지를 분리하는 의식이다. 말하자면 신분은 하늘의 뜻이나 되물릴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인위적인 제도의 산물임을 드러내는 셈이다.

둘째, 거사 결심은 기층민중들이 새 무인천하 아래에서 겪는 절망과 분노라는 “민심의 흐름”(182)을 정확하게 읽어낸 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망이는 산행병마사라 자임했을 것이다. 그것은 “설움받는 민중을 위해서, 민중이 선출해 받든 민중의 군사령관이란 뜻”(166)이다.

셋째, 망이 형제의 거사는 연속적인 변동의 대중적 체험에 근거한다.

사실은 석령사를 두목으로 한 민중봉기가 없었다 하더라도, (...중략...) 어느 때 어디서 터져도 터지고야 말 소지를 가지고 있었던 중에

27) 원래 매개적 인물은 어느 한편의 질서에 속하지 않는 제 3의 예외적 인물을 뜻한다. 그는 자기시대의 지배이데올로기를 비판할 수 있는 힘을 소유하며, 역사의 법칙성, 즉 역사발전의 방향성을 자각한 세계사적 개인이라고 이해된다. 망이 아버지가 인간형식의 운명, 곧 인위적 신분체계를 부정한다는 의미에서 매개적 인물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매개적 인물에 대해, 김윤식, 『한국근대문학사상비판』, 일지사, 1978, 246-257쪽 참조.

서도, 특히 1172년 명종 2년6월에 일어났던 이른바 서북면삼개소(西北面三個所)의 민란은 기질깨나 있는 민중의 불평분자들을 자극하기에 남음이 있는 대사건이었다.(173-174)

도처에서 빈발한 반란과 민중봉기, 권력투쟁은 민중이 경험하는 변동에 질적으로 특수한 성격을 부여한다. 마치 양적 고양에 질적인 것으로 전화되듯이, 대중에게 변동은 재해나 이변이 아니라 “어느 때 어디서 터져도 터지고야 말” 필연적인 것으로 인식된다. 이를 역사의 대중적 체험이라 한다면, 작가는 망이 망소이 난의 역사적 특수성과 그 기반을 드러낸 것이다.²⁸⁾

이상의 근거를 염두에 두면, <어머니>가 줄다리기를 소설의 첫머리로 삼은 것은 의미심장하다. 줄다리기는 상하의 구별이 없는 놀이요 축제(162)이며 동시에 대항세력 사이에 힘을 건주는 경쟁이며 싸움이다. 그러므로 줄다리기에서 승리의지가 결과를 결정할 수 있다는 확신, 의지적인 결단과 적극적인 행동이 요구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거사의 성공 요인으로 장사도 당해내지 못한 “민심의 단결”(188), 즉 기층민중의 공동행동을 강조한다.

<어머니>에서 민중구성원 경작권만을 지녔을 뿐 농노와 다를 바 없는 농민, “사육(飼育)하는 동물보다도 더 비참한 처지”(180)의 영세노비를 포함한다. 농민도 농노이고 천민 역시 노비와 다를 바 없는 처지라 하고 있으므로, <어머니>는 빈농하층민 혹은 천민노비를 저항운동의 기본동력으로 삼는 셈이다. 이러한 기층민중의 불만이 팽배해 있으므로, <어머니>는 기층민중의 대중적으로 현존하는 가능성을 세계로 끌어내어 현실화한 것이다. 말하자면 망이의 거사는 기층민중의 잠재적 가능성에 기반을 둔다고 하겠다. 이는 <경대승>에서 경대승이 역성혁명도 가

28) 역사는 실제하며 끊임없는 운동과정에 있고 개개인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역사의 대중적 체험이다. 게오르그 루카치, 『역사소설론』(이영욱 역), 거름, 1987, 17-18쪽.

능케 할 기층민중의 잠재적인 위협을 의식한 것과 명백하게 구분된다.

그렇다면 망이의 거사 목적은 무엇인가? 명학소를 충순현으로 승격한 정부의 회유책에 의해 1차 반란이 진정된 것을 근거로, 역사학계는 망이 망소이의 난을 부곡천민들의 신분적 법제적 차별에 대한 반항이라 이해한다.²⁹⁾ 그런데 망이는 요구한 바 없는 현 승격이란 속임수라 하고, “우리 싸움이 끝나는 건 우리의 목적이 달성되는 날”이라고 말한다. 그 목적은 아래와 같다.

만민이 평등하도록 우리를 축생 이하의 구속에서 풀어 달라는 거야. 우리를 사람같이 한번 살아 보도록 무거운 잡세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야. 우리에게만 둘러썩은 부당한 공물과 부역과 병역에서 부담을 덜어 달란 말이야. 우리에게도 경작의 의무만이 아닌 토지를 주고, 우리도 귀한 사람처럼 국학(國學)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고, 떼땃하게 말도 탈 수 있는 자유와, 귀인이 지나갈 때 땅에 엎드리지 않아도 좋을 자유와, 양민들과 혼인할 수 있는 자유와, 가축처럼 매매가 안되고 도 살 수 있는 인간의 자유를 달란 말이야.(196)

만민평등과 인간자유의 날이 “천민해방이 이룩되는 그날”(272)이라면, 망이는 온갖 인위적 제도적 굴레로부터의 인간해방, 곧 인류의 보편적 행복을 지향하는 듯하다. 이러한 지향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당대 민중의 생존적 현실에 근거한 역사전망인가는 불확실하다. 근거가 있는 역사의 방향이라면, 이들의 목적은 체제의 근본적인 변혁, 즉 새로운 권력체계를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들의 저항이 새로운 권력체계를 향한 정치적 변혁운동일 가능성을 배제한다. 망이는 정권장악에 목

29) 민란의 성격을 두고 천민집단의 신분해방운동과 농민반란의 결합이라는 주장과 군현인에 비해 가혹한 수취에 시달려야 했던 부곡제 주민의 저항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어 있다. 대체로 소민과 유망농민층이 주축이 된 농민항쟁으로 보고, 주변의 농민항쟁 세력과 연결을 도모한 점, 군현 단위를 넘어 여러 군현에 걸쳐 농민항쟁을 전개한 점, 뒤이은 농민항쟁에 영향을 미친 점에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말해진다. 김호동, 같은 글, 146, 156, 163쪽 참조.

적이 있는 것이 아니며, 또 “우리들 같은 무학(無學)한 처지로서는 정치할 능력이 없”다는 것, 따라서 “나라의 악제도를 뜯어 고쳐서”사람구실하며 살 수 있도록 “집권자에게 보장을 약속”받자(182-183)고 주장한다. 무학의 처지로 정치할 능력이 없다거나 나쁜 제도를 고치자고 한다는 점에서, 망이는 경대승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말하자면 정권 전복보다 체제 내적인 제도개혁에 목적이 있는 것이다.³⁰⁾ 따라서 “반드시 왕경에 이르고 말겠”다는 결의를 두고 “천하에 그 통분한 사정을 알”리려 한 것일 뿐이라 함(224)은 정치적 변혁의지를 과소평가한 것일 수 있다.³¹⁾

민란의 생존적 근거를 구체화한 것일 수 없는 상태에서, <어머니>는 “변할 수 없는 천민 해방의 항거의식”을 역사의 숙제(247)로 남길 뿐이다. 작가의 강조는 망이 망소이의 불운 혹은 그들의 비통한 죽음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한 데 있는 듯하다. 다음과 같은 대미가 그러하다.

오래간만에 활짝 갠 푸른 하늘을 이고, 거리가 서서히 주민들의 기동(起動)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아침.

아직 피가 마르지 않고 있는 두 머리를 차마 바로 쳐다보려고도 않으면서, 그 아래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마다의 깊은 감회에 젖어 있었다.(274)

30) 류종렬, 같은 책, 341-342쪽 참조.

31) 2차봉기에서 왕경에 이르고 말겠다는 것을 두고 반정부적인 변혁의지로 해석하기도 한다. 김호동, 같은 글, 164쪽. 12세기 초중반에 유민과 도적의 발생은 무인정권하 농민항쟁의 前史로 여겨진다. 그 원인으로 ① 부강양반과 권세가에 의한 토지점탈, ② 수령 이속층의 과도한 농민수탈을 드는데, 이 가운데 권세가 및 수령 이속층과의 대립은 국가와 농민의 대립구조로 이해된다. 이런 대립을 전제할 때, 새로운 국가건설을 목표로 하는 정치적 변혁운동의 가능성을 수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명종 23년 경주 김사미, 효심의 봉기에서 나타난 신라부흥운동은 농민운동을 정치적인 변혁운동 차원으로 이끌었다고 평가된다. 박종기, 『무인정권하의 농민항쟁』, 『한국사 서민강좌』 8집, 일조각, 1991, 63, 68-75쪽 참조.

백성들이 눈물로써 그 청렴성을 기린 <경대승>의 경우, 경대승에게 여한이 있을 수 없고, 그는 모든 인간의 죽음이라는 보편적 운명에 포섭된다. 그러나 <어머니>에서 망이 형제의 죽음은 그들만의 특별한 운명, 다른 사람의 죽음과 대체할 수 없는 특수한 죽음을 의미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들의 죽음은 사회에 기여한다. 효수된 망이 망소이의 머리를 차마 바라보지 못하는 것처럼, 그것은 이기적인 삶을 부끄럽게 만든다는 뜻에서 그렇다. <어머니>가 과거 역사 속에 숨겨진 가능성의 탐구일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³²⁾

3. 민중성의 편협한 인식과 반응의 상쇄효과

<어머니>는 망이 형제의 죽음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지만, 이들 형제를 제외하고 작품 내에서 난군 개개인의 차별성이나 개별성은 구체적인 형상을 얻지 못한다. 이는 난군이 단합된 힘, 곧 하나의 통일적 연대 속에서 행동함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죽느냐 사느냐는 우리의 단결 하나에 달려 있는 것이오!(186)

우리에게 사람같이 살게 해준다는 보장을 확약받는 날까지 싸워서 지면 전멸하는 거고, 이기면 우리도 남들같이 사람 구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야.(199)

이번이야말로 한번 일어섰다고만 하면 천민들이 인간으로 환원이 되거나, 아니면 아주 몽땅 영원한 노예로 굳어져 버리거나 두 가지 결과 중의 어느 한쪽이 될 수밖에 없는 단판결이인 것이었다.(218)

“건곤일척(乾坤一擲)의 사생”(179)을 걸었다거나, “사생의 마지막을 건 결판전”(227)이었다는 진술처럼, 망이는 삶과 죽음, 인간과 노예를 가

32) 벤야민에 의하면, 이야기형식에서 역사는 연대기 곧 자연사에 가깝고 그래서 죽음이 주제화되지 않는다. 그러나 소설은 질서있는 기억을 통해 경험적 이질성을 통일하며 죽음을 통해 삶의 의미를 드러낸다. J.M.Bernstein, *The philosophy of the novel*(Univ.of Minnesota Press, 1984), pp.135-136 참조.

르는 단판결이 승부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 생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단판결이인 까닭에 중립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망이는 공주 백성 전체가 반역하였으니 ‘중립’은 없다고 말한다.(186-187) 이런 의미에서, 그는 상호충돌하는 양극단을 매개할 중도적 인물일 수 없다.³³⁾

이런 사정 때문에, <어머니>는 당대 삶의 전체를 상하층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 속에서 형상화하지 못하고 억압 착취받는 계급만을 배타적으로 드러낸다. 이는 민중성에 대한 편협한 파악일 것이다.³⁴⁾ 껍쇠, 선바위, 덕보와 같은 인물이 등장하지만, 그들의 역할이나 몫, 그들의 직접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구체화되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개별성을 결여한 채 집단성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들이 항쟁의 목표와 방향을 주체적으로 인식한다고 보기 어렵다. 거사의 목적을 제도개혁에 둔 망이의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드물었다”는 지적처럼(183), 망이는 강력한 주력부대로서의 농민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농민과 이해관계가 달랐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어머니>는 기층민중들의 동요와 혼란을 드러내며, 이는 역사적 상황을 전체적으로 그려내려는 노력으로 이해될 수 있다. 루카치가 지적 하거나, 민중은 역사의 전환기나 변동기에 적대적인 양진영 중 어느 한편을 열광적으로 편들기보다 그 사이에서 동요하면서 일상적 삶을 계

33) 스코트의 주요 인물은 중도적 인물로 위기에 처한 특정한 역사적 이행기의 총체성을 형상화한다. 스코트의 경우, 인물은 민족적으로 전형적 성격을 지닌 인물이며, 상호투쟁하는 양극단을 매개함으로써 사회의 거대한 위기를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동시에 세력들간의 상호인간적 관계를 맺게 만든다. 이런 중도적 인물은 보수적인 스코트 자신이 상충하는 양극단의 중도노선에 있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고, 특히 끊임없는 계급투쟁과 반란이 영국 발전의 유기적 요소가 된 사정, 영국 사회의 상대적 안정성과 무관하지 않다고 이해된다. 게오르그 루카치, 같은 책, 29-35쪽 참조.

34) 이는 군왕의 실정, 상층의 학정과 탐학, 권력투쟁에 치중한 <경대승>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군왕이나 무인집권자의 악덕도 그 역사적 존재기반 위에서 성장하는 것이라면, 상층에서 발생하는 것의 물질적 토대, 문학적 설명근거를 하층에서 포착할 때 강렬한 민중성의 경향을 띠게 된다. 게오르그 루카치, 같은 책, 51쪽.

속한다. 거사를 전적으로 외면하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 관에 고발하는 몽택이가 있는 것처럼, 투쟁 가운데 농사일을 걱정(239)하는 것은 농민의 소박한 유토피아적 소망일 수 있다.

그러나 망이가 무인정권에 대한 백성들의 불만에 근거하여 거사를 결심하지만, 그 결심의 토대인 백성들의 불만은 상호대립적이거나 심지어 퇴영적인 요소를 포함한다.

새 무인천하에 대한 불만이 쌓여 가자,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비참하게 죽은 전왕 의종(毅宗)에 대한 기억이 날을 따라 되살아 확대되어 왔다.

“무도한 정가놈이 임금님을 살해한 건 순전히 저 하나 잘살자는 속셈 밖에 다른 게 아니잖아!”

“아니 그 작은 정가놈은 언감생심 공주를 앗으려 한다지?”

외람히 궁중을 알고 있는 정 중부의 아들 정 균에 대한 소문은, 더한층 백성들의 분노에 불을 질러 주었다.(…중략…)

“구관이 명관이란 말이 있지. 이렇게 되면 차라리 문신 천하가 나왔던 게 아닐까?”

“석령사가 하긴 잘했었는데 어찌다가 그만…”

“그래 말이야. 성사가 됐더라면 우리가 지금쯤은 좀 편하게 됐을지도 모르는 일인데 말이지.”(181-182)

의종에 대한 기억과 함께 “구관이 명관”이라는 반응은 석령사의 저항과 조화될 수 없다. 이는 천민노비들이 “옛날 백제가 돌아왔다”는 환호와 함께 “이젠 글 배워 벼슬 해먹고 사는 새 세상”(204)이 왔다는 천민노비들의 상충된 반응과 다르지 않다. 이처럼 상호대립적 경향은 백성들의 삶에 대한 유연한 해석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상충된 반응은 상쇄효과를 갖기 때문에, 연속적 변동을 통해 획득한 역사의식이 예각화될 수 없다는 문제를 지닌다. 말하자면 이들 반응은 언제 어디서나 있을 수 있는 경향일 뿐, 역사적 특수성에 입각하여 기층민중들의 생

각에 지배적 영향을 미치고 행동을 결정하는 요소는 아닌 것이다.

IV. 현실의 과제와 민족의 주관적 인식

1. 역사의 아이러니와 공동체적 연대

앞서 <경대승>은 민중의 잠재력을 불온하게 여기는 경대승을 내세워 권력체계 내부의 비적대적 경쟁, 왕도정치, 체제내적 개혁을 모색한다고 지적하였다. 또 <어머니>는 기층민중의 잠재적 가능성을 현실화하지만 근본적인 정치적 변혁을 목표로 하지 않으며 이는 민중성에 대한 편협한 인식과 연관됨을 지적하였다. <경대승>과 <어머니>에서 작중인물이 당대와 맺는 이같은 관계는 작가의 현재인식, 사회 전체에 대해 취하는 태도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일제의 감옥에서 해방을 맞은 이주홍에게 1965년 한일협정으로 압축되는 시대상황은 매우 절망적인 사태로 여겨졌을 것이다. 그는 이러한 심정을 68년 단편 <수염난 童話>에서 저승여행이라는 우의를 통해 드러낸 바 있다. 나라를 위해 ‘적’과 싸우다 전사한 수많은 무명민병들은 ‘원귀’가 되어 떠돌고 있는데, 친일매국노가 더욱 활개치고 있으니 이런 “기막히는 세상”이 어디 있겠느냐는 것이다.³⁵⁾

자네는 신불을 믿는다고 했지만, 일찌기 사마천(司馬遷)은 <사기>(史記)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었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천도(天道)는 공평무사해서 어느 때고 선인(善人)의 편이 되어주는 거라고. 그렇다면 천도는 어째서 선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백이숙제(伯夷叔齊)를 굶어죽게 했느냐. 그러면서 반대로, 도적(盜跖)이 같은 사내는 매일 죄없는 인간을 죽이고, 사람의 고기를 먹고, 흉악무도한 짓을 하면서 수천 도당으로

35) <수염난 童話>, 『현대문학』 168호, 1968.12, 153쪽.

천하를 횡행해 다녀도 어떻게 천수(天壽)를 누릴 수 있었냐고. 그래도 천도는 선인의 편이 돼있는 거냐고 말일쎄. 그러니 세상에 하늘이 그 모양인 판에 뒀을 믿으란 말이냐.<수염난 童話>, 157쪽)

말하자면 사필귀정이라거나 권선징악이라는 추상적 정의가 없다는 것이다. 도덕과 정의라는 당위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부도덕과 불의가 지배하는 부조리아말로 역사적 사실이요 현실이 아니냐는 뜻이다. 이런 의미에서, <수염난 동화>는 “역사의 본질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 곧 역사의 부조리에 대한 강한 의식³⁶⁾을 드러내었다고 이해된다.

<음구>(1972), <신화>(1973) 또한 친일파가 득세하고 심지어 항일투사로 추앙되는 역사의 아이러니³⁷⁾를 보여준다. 역사의 부조리 혹은 아이러니로 볼 때, 이주홍에게 시간은 행복한 전체나 발전에 이르는 계몽의 도정이 아니다. ‘陰溝’라는 제목이 암시하듯, 시간과정이 초래하는 질적 변화는 부패와 타락에 이르는 불만스러운 경로이다.

탁한 물도 맑은 물도 중국엔 같은 바다로 들어간단 말인가. 역사란 그 바다! 차라리 선부(先父)처럼 그때에 죽었더라면 이런 오욕의 흙탕물 속엔 몸을 안 더럽혀도 좋았을 것이 아닌가.<음구>, 82쪽)³⁸⁾

시비와 청탁을 불문하고 같은 바다에 이르는 것이 역사라면, 이 교활한 역사는 인간의 의지로 통제할 수 없고 따라서 선인도 약자도 편들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역사는 오욕의 흙탕물일 수밖에 없다.

이상의 몇 가지 근거로 볼 때, 60-70년대의 현실에서 이주홍은 민족적

36) “천도가 항상 선인의 편이라고 믿지 않는”사마천의 생각은 “그대로 향파의 생각”이며 <경대승><어머니>에도 이러한 역사관은 그대로 나타난다고 해석된다. 김천혜, 『부조리에의 반역』, 『이주홍문학연구-작가작품론』, 109-111쪽 참조.

37) 김병걸, 『이주홍 문학의 세계』, 『이주홍문학연구-작가작품론』, 68쪽.

38) 이주홍, 『풍마』, 을유문화사, 1973 소재의 작품을 대상으로 하고 인용할 때 쪽수만 표시함.

이상과 실제 현실, 도덕적 이상과 사회적 결과 사이의 괴리를 고통스럽게 의식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런 이상과 현실의 대립으로부터 이주홍의 강렬한 역사의식이 출현한다. 이런 역사의식을 토대로 이주홍은 <음구>에서 일본풍, 일제물화가 넘치는 상황, 젊은 세대의 역사에 대한 무지, 기성세대의 역사 건망증,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75)이며, “아버지는 아버지고 자식은 자식”(82)이라는 천박한 현실논리를 예리하게 비판한다. 그리하여 철도병원 불하문제로 성토대회가 열린 기미동지회관에서 작고 약하지만 맥맥히 흐르는 “민족의 물줄기”를 발견하고 해방 직후의 감격을 떠올린다.

미산은 해방 때의 그 백성상(百姓像)을 다시 한 번 감각했다. 개아(個我)를 떠난 숭고한 흥분·용기·희망·투지! 그것은 위대한 시(詩)였고, 승화된 인간애(人間愛)의 대합창이던 것이었다.(<음구>, 84)

“개아(個我)를 떠”나 용기와 희망에 넘치던 해방 당시의 ‘백성상’은 역사의 저류에 흐르고 있는 민족의 물줄기를 의미하며, 이는 훼손되지 않은 시적 가치를 회복한 서사시적 장면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이주홍에게 민족의 자주적 생존은 신성한 가치임이 분명하지만, 그것이 역사의 발전적 지평과 연관되는 것인가는 의문스럽다.³⁹⁾ 민족의 강물에 대한 확신에도 불구하고, 윤의수는 심채정과 만나기로 약속된 호텔 앞에서 왜소한 자신에게 깊은 절망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산이 감각했다는 시적 황홀경의 백성상이란 역사의 이면에 잠복된 가능성이라기보다 민족적 위기와 절망 앞에서 그려진 심정적 허상일 수도 있다. 말하자면 그것은 절망의 반작용에 의한 서정적 섬광, 주관적 이

39) 민족자존과 독립에의 열망, 민족사의 재발견, 과거의 위대함과 민족적 굴욕 계기에 대한 회상 등은 대중에게 역사의식이나 역사체험을 불어넣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열망이 반드시 진보적인 것은 아니며, 때로는 반동적 이데올로기로 귀결할 수도 있다. 게오르그 루카치, 같은 책, 20쪽.

념과 같은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음구>는 민족 내부의 공동체적 연대를 암시한다. 물론 이주홍이 민족 내부의 갈등을 억압하거나 화해를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죽인다 살린다 싸운다 터진다 해도 그래도 우리 겨레끼리니까 얼마나 마음 편한가”(〈음구〉, 74-75)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겨레끼리’의 싸움은 서로 다른 꿈을 위한 길항일 뿐, 극단적 배타적인 투쟁을 의미하는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같은 민족으로서 서로의 운명은 불가피하게 결부되어 있으므로, 민족 내부의 적대적인 투쟁은 자멸에 이른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겨레’ 혹은 ‘백성’은 계급대표자가 아니라 이민족의 침략에 맞선 민족대표자라고 이해된다.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이 시기 이주홍은 역사의 아이러니에 절망하면서 민족의 공동체적 연대를 당면한 과제로 인식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투쟁으로서의 삶과 계급주체의 부재

<경대승> <어머니>는 이주홍의 이와 같은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 <경대승>에서 이주홍은 정서(鄭絳)를 예로 들면서 “충성을 다하고도 수양산에 들어가 굶어죽은 백이숙제”처럼, “정직할수록 고독”하기 마련이니 “하늘이 참된 자를 돕는다는 말은 예나 지금이나 불운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 주는 마취제”(38)라고 지적한다. 물론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하늘의 뜻과 인간의지는 별개의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살아남기 위한 투쟁이 바로 역사일 것이니, <경대승>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피할 수 없다.

사람을 죽이는 일이 개인간이나 지는 편에 붙어 있었을 경우엔 큰 죄가 되는 것이나, 국가나 당파의 이기는 쪽에 섰을 때에는 영광스런 논공행상(論功行賞)의 대상이 된다.(109)

이같은 승자의 정의는 <어머니>에서 승리하면 인간으로 환원되고 패배하면 전멸이라는 망이의 논리와 구조적으로 동질적이다.⁴⁰⁾ 바로 이것이 투쟁으로서의 역사에 대한 이주홍의 통찰이라 할 것이다.⁴¹⁾ 그러나 이러한 통찰이 역사의 운동과정, 역사의 발전적 지평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역사의 진보에 대한 계급투쟁의 결정적인 역할을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역사소설의 중요성은 참다운 역사의식의 출현에 있다고 루카치가 지적하고 있거니와, 이 역사의식은 과거를 현재의 필수불가결한 전사(前史)로 파악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현재의 전사로서의 과거라고 할 때, 이는 현재에 대한 과거의 영향 혹은 과거와 현재의 생생한 연관을 뜻한다. 따라서 과거를 현재의 전사로 그려낸다고 함은 현재를 바로 그 현재이게끔 하는 역사의 필연적 과정을 그려낸다는 뜻이다. 그래서 현재는 “역사적인 지금 그리고 여기”이다.⁴²⁾ 이런 의미에서, 역사는 과거이며 동시에 현재이다. 말하자면 역사적 견지에서 현재를 본다는 것이다.⁴³⁾ 그렇다면 현재 또한 운동과정에 있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청탁 구분없이 뒤섞이는 역사의 아이러니에 절망하고 있다면, 현재의 삶을 이루어낸 역사적 인간적 힘을 생생하게 그려낼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경대승>과 <어머니>의 배경인 고려시대를 작가

40) 이주홍의 <수염난 동화><음구>는 몇 가지 모티프에서 신채호의 <꿈하늘>(1916)과 유사하여 흥미롭다. 예를 들어, 주인공의 지옥순례, 인간에게 싸움이 있을 뿐이니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다거나, 민족 외부의 적이 있으니 자기와의 싸움은 불필요하며, 미인보다 나라사랑이 우선이라는 것 등이 그러하다.

41) 인신매매라고 할 조흔의 비참상을 다룬 <山家>(1936)에서 이주홍은 “인간의 모든 역사는 삶의 투쟁에 출발한다”는 말로 끝맺는다. 이는 사회주의적 변혁전망으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생존을 위한 자연발생적 본능적 투쟁이라 함이 실감에 더 가깝다. 또 문학은 발언이라는 이주홍의 말을 두고,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부조리한 역사와 현실에 대한 비판적 향의로 해석하고 있지만, 이는 보다 세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말하고 싶은 것보다 말할 수 있는 것,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중요한 까닭이다. 이는 작가의 자의적 선택과 무관한 역사의 방향성 문제이다. 김윤식, 『한국근대문학사상비판』, 264쪽 참조.

42) 게오르크 루카치, 같은 책, 57, 68, 73, 95-96쪽 참조.

43) Harry E.Shaw, 같은 글, p.534.

가 자기시대의 필연적 전제로 그려낸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작가가 역사로부터 미래전망을 암시할 어떤 계급적 주체도 발견할 수 없음을 당연하다고 하겠다. <경대승>에서 경대승은 완성된 인격체로 제시되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작가는 구성상 필요한 허구적 설정을 통해 그가 중대한 인물로 어떻게 성숙해 가는가를 그렸고, 이 때문에 경대승은 민중을 포괄하는 역사 흐름과 일치하거나 그것을 대표할 수 없다. 그래서 그는 문무의 비적대적인 경쟁을 허용하고 난민을 달래야 한다며 체제내적 개혁을 에 머문 것이다.⁴⁴⁾

<어머니>에서 망이 망소이 또한 특정한 지배체제의 민중, 즉 계급이 자기보다 나라의 백성처럼 보인다. 몽택이에게 한 망소이의 다음과 같은 말이 그 증거이다.

우리도 꼭같은 백성이 돼서 버젓하게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살맛이 서겠는가. 그렇지만 그게 안되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에 하소연을 해본 게 아니던가.(263)

귀족관벌 출신이요 정권을 장악한 경대승에게 나라는 구체적 현실일 것이다. 그러나 망소이가 소망하는 ‘백성’에게 나라는 여전히 관념에 불과할 것이다. 자신이 만든 나라라는 자의식 없이 나라가 구체적 실감으로 다가올 이치가 없기 때문이다.

<수염난 童話>의 경우 수많은 민병들이 임란, 호란, 동학란에서 “나라를 위해” 전사했다거나, <아버지>(1981)에서 “백성이 일치단결해서 한사향전”함으로써 고려와 조선시대의 외환을 극복했다고 할 때, 이주홍은 한국사를 외적의 침입에 맞선 투쟁의 민족사로 간주함이 분명하다.

44) 윌트 스코트의 역사소설에서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은 완성된 인격으로 제시된다. 그는 민중을 포괄하는 역사의 흐름과 일치하며 그래서 위대하다. 그러나 서사시와 달리, 역사소설에서는 역사상 위인이나 세계사적 개인도 어느 당파의 지도자거나 투쟁하는 계급의 대변자이 구성상 부수적 주변적 인물일 뿐이다. 게오르크 루카치, 같은 책, 37-38, 46-48쪽.

6, 70년대를 통해 이주홍은 사회계급으로서의 민중보다 외래침략에 맞서는 민족(백성)을 더 의식한 것이다. 그러나 그의 소설에서 드러나듯, 국가위기에 동원된 ‘나라의 백성’이기는 하나, ‘백성의 나라’는 아니었다고 보면, 이주홍의 민족사에 대한 의식은 이념의 투사일 가능성이 크다. 달리 말하면, 그의 소설에 주관적으로 인식된 백성(민족)이 있을 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계급은 부재한다는 뜻이다. 이런 부재 때문에, 백성 혹은 민족에 대한 시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6-70년대에 이주홍은 역사와 미래에 대한 인식상의 회의를 빠지지 않을 수 없다.

<경대승><어머니>가 객관적 존재에 근거하여 미래에 대한 의식적인 결단을 보여줄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⁴⁵⁾ 그 대신 이주홍은 현재에 대한 돌연한 표현으로써 과거와 현재를 결합할 뿐이다. 예를 들어, “지금의 강원도”(15) “예나 지금이나”(38) “축시(丑時), 지금으로 하면”(167) “지금의 평안도”(174) “지금의 아산”(227) 등이 그러하다.⁴⁶⁾ ‘지금’은 서술자의 비언어적 서술맥락을 표시하는 직시표현이다. 이런 직시표현은 서술자가 소설세계를 인식하는 중심임을 뜻한다. 현재 독자와의 소통을 가정하지만, 지금 여기의 돌연한 암시로 역사 운동의 객관적 과정을 그린다고 하는 리얼리즘의 규율에 충실할 수는 없을 것이다.

45) 미래에 대한 의식적인 결단은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다. 하나는 미래를 위해 필요하고 바람직하며 가능한 것에 대한 예언적 서사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현재 우리는 누군가를 말해주는 회상적 이야기이다. M.Hanne, *The Power of The Story: Fiction and Political Change*(Berghahn Books, 1994), p.36.

46) 역사적 풍습 가운데 현재 상황에 대한 돌연한 암시나 인물의 현대적 감성 등 역사적 형상화의 현대화를 루카치는 사이비역사소설로 간주한다. 이주홍이 무인정변을 두고 ‘쿠데타’라 한 것도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게오르그 루카치, 같은 책, 81쪽.

V. 맺음말

지금까지 본고는 이주홍의 <경대승> <어머니>를 중심으로 작중인물의 행위와 의식을 검토하고 그 토대 위에서 작가의 역사의식과 현실인식의 상관성을 해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대승>은 史實과 역사기술방법에 크게 의존하여 반역사적 구조라 하겠지만, 청주민란과 문관명가 출신이라는 허구적 설정을 통해 작중인물의 삶에 전환점을 제공한다. 무인 선택과 재산 헌납이라는 전환은 경대승의 거사를 정당화하기 위한 설정이며, 모든 독전을 비판하는 경대승은 권력 내부의 비적대적 경쟁을 혼란을 극복할 대안으로 제시한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경대승은 仁政, 즉 덕으로 인을 실행하는 왕도정치를 지향하며 正道 회복의 방법으로 체제내적 개혁을 모색한다. 이는 민중의 잠재력을 위협한 것으로 인식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둘째, <어머니>에서 어머니는 남성적 여성이며,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반복적으로 이야기함으로써 망이 형제가 저항주체로 성장하는 데 동기를 부여한다. 이런 점에서, 아버지는 자식들의 자기부정을 매개하는 행동모델이다. <어머니>는 역사적 변동에 대한 대중적 경험을 토대로 삼고 빈농하층민 혹은 천민노비를 저항운동의 기본동력으로 설정하여 인간해방을 추구한다. 망이 망소이의 난은 기층민중의 잠재적 가능성에 근거하지만, 체제 내적 개혁을 모색함으로써 인간해방의 날을 역사의 과제로 남긴다. 작가의 강조는 이들 형제의 죽음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데 있는 듯하다.

셋째, 6,70년대에 이주홍은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역사의 아이러니에 깊이 절망한 듯하다. 그는 민족적 이상과 실제 현실 사이의 괴리를 고통스럽게 여겼는데, 역설적으로 이런 괴리로부터 그의 강렬한 역사의식이 출현한다. 이주홍의 역사의식은 역사에 대한 무지와 건망증을 비판하게

되며 민족의 공동체적 연대를 당연한 과제로 인식한다. <경대승><어머니>는 이런 인식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살아남기 위한 투쟁의 역사라는 통찰이 승자의 정의와 구조적으로 동질적이며, 주관적으로 인식된 민족(백성) 관념은 역사의 발전적 지평을 드러내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이주홍, 경대승, 어머니, 반역사적 구조, 왕도정치, 민란, 민중성, 아니러니, 역사소설

참고문헌

1. 자료

- 이주홍, <수염난 童話>, 『현대문학』 168호, 1968.12.
이주홍, <神話>, 『현대문학』 226호, 1973.10.
이주홍, 『깃발이 가는 곳을 향하여』, 태화출판사, 1984.
이주홍, 『풍마』, 을유문화사, 1973.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민족문학대계』 8권, 동화출판공사, 1977.
『문예진흥월보』, 1974년 5월호, 7월호, 1975년 8월호.
동아대학교고전연구실 편, 『역주고려사 8』, 태학사, 1987.
민족문화추진회 역, 『고려사절요』 2,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86 중판.

2. 논저

- F. 제임슨, 『변증법적 문학기론의 전개』(여홍상·김영희 역), 창작과비평사, 1984, 89-91쪽.
게오르그 루카치, 『역사소설론』(이영욱 역), 거름, 1987, 17-18, 20, 29-35, 37-38, 46-48, 51, 57, 68, 73, 81, 95-96쪽.
경규만, 「경대승의 집권과 그 성격」, 충북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4, 6-11쪽.
김당택, 『고려무인정권연구』, 새문사, 1987, 26-30쪽.
김병걸, 「이주홍 문학의 세계」, 『이주홍문학연구-작가작품론』, 68쪽.
김윤식, 「역사 소설의 네 가지 형식」, 『한국근대소설사연구』, 을유문화사, 1986, 395, 412-417쪽.
김윤식, 『한국근대문학사상비판』, 일지사, 1978, 246-257, 264쪽.
김창현, 「정중부정권의 성립과 운명」, 『한국중세사연구』 15호, 2003, 16-17, 22쪽.
김천혜, 「두 편의 역사소설-이주홍의 <어머니><아버지>론」, 이주홍 아

- 동문학상 운영위원회 편, 『이주홍문학연구-작가작품론』, 57, 59쪽.
- 김천혜, 「부조리에의 반역」, 『이주홍문학연구-작가작품론』, 109-111쪽.
- 김호동, 「명학소민 봉기의 결과와 역사적 의미」, 『한국중세사연구』, 15호, 2003, 146, 156, 163-164, 169-170쪽.
- 류종렬, 『이주홍과 근대문학』,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4, 321, 326-328, 341-342, 385, 413쪽.
- 류지한, 「베버의 가치 철학에서 책임윤리와 합리성의 한계」, 『철학논총』 29집, 새한철학회, 2002, 192-197쪽.
- 박종기, 「무인정권하의 농민항쟁」, 『한국사 시민강좌』 8집, 일조각, 1991, 63, 68-75쪽.
- 발터벤야민, 『발터벤야민의 문예이론』(반성완 역), 민음사, 1983, 123, 170, 183쪽.
- 변태섭, 『고려사의 연구』, 삼영사, 1987 1판2쇄, 118-119, 210쪽.
- 송명희, 「이주홍의 역사소설과 역사적 상상력」, 이주홍 아동문학상 운영위원회 편, 『이주홍문학연구-작가작품론』, 대산, 2000, 155-156, 159, 160쪽.
- 이재선, 『현대한국소설사』, 민음사, 1991, 320-321, 327쪽.
- 하운하, 「순자의 인간관과 정치사상」, 이화여대 석사논문, 1993, 55-56쪽.
- 허영석, 「이주홍 소설의 변모 과정 연구」, 이주홍아동문학상 운영위원회 편, 『이주홍문학연구-학위논문모음』, 대산, 2000, 229-234쪽.
- Harry E.Shaw, "The Historical Novel", M.Coyle, P.Garside and J.Peck(eds), Encyclopedia of Literature and Criticism(Routledge, 1991), pp.534, 537.
- J.M.Bernstein, The philosophy of the novel(Univ.of Minesota Press, 1984), pp.135-136.
- M.Hanne, The Power of The Story: Fiction and Political Change (Berghahn Books, 1994), pp.12-14, 36.

<Abstract>

A Study on Lee, Ju-hong's Historical Novels

Hwang, Koog-M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terrelation between the historical consciousness and the recognition of the reality focused on two historical novels in Lee, Ju-hong's narratives.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ough <Kyungdaesung(경대승)> relies on historical evidences, it endows a protagonist with the turning point through fictional devices. He suggests harmonious competition and benevolent government as an alternative idea. On the other hand, <Mother(어머니)> suggested that the confrontation method for exploitation and suppression was not frustration but strong will and resistance consciousness. But this novel did not stress the people's struggle as historical progress.

In 6-70's, it was true that Lee suffers from the historical irony. Therefore, it was the core of Lee's historical consciousness that History is injustice. This consciousness based on Lee's historical novels and his understanding of the reality that not found a propelling subject of history and a vision of the future.

Key Words : Lee Ju-hong, Kyungdaesung, Mother, anti-historical structure, benevolent government, popular uprising, the people, irony, historical novel